

서울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 : 중증, 최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최형민*

우리나라의 경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핵심 용어로 사용되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영어의 ‘Focusing on rights-oriented public jobs’을 번역하여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 후 맞춤형 중증 장애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시작이 되어 왔다.

해당 사업 제도에 의한 개념 정의를 보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UN CRPD)를 기반으로 중증 장애를 지닌 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및 다양한 직무 활동으로 이것 또한 노동이다.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필요 여부는 특정한 일자리 혹은 직무 활동이 아니라 사회에 배제된 중증장애인도 다양한 직무 활동을 통해 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활동 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 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 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 1. 9. 조건).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해 늘려가는 등 좋은 취지가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중증장애인 인구 현황에 비해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비율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해당 연구를 통해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파악하여 고용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일자리를 통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10년 후인 2033년에는 맞춤형 권리중심형 공공일 자리를 통해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도 노동의 기회가 열려있을 것으로 예

*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되며,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기회의 요건은 더욱 증가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UNCRPD

I. 서론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이 매우 곤란한 사람을 가리킨다. 특정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각, 언어, 간, 안면, 장루, 요루, 지체 장애는 현행 장애인 기준 2급 이상의 장애 정도를 중증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대부분은 장기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권리란 UN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보호하고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CRPD에 대한 주요 원칙은 8가지 주요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둘째, 비차별, 셋째,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넷째,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다섯째, 기회의 균등, 여섯째, 접근성, 일곱째, 남녀의 평등, 여덟째,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 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을 목표로 노동권 참여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동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있어서 인권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수단이다.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노동 및 교육 그리고 이동권처럼 시민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본연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비장애인의 경우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고, 해당 임금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대한 권리를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해야 한다. 기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이 노동함으로써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지우고 거시적인 차

원으로 봤을 때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해당 본 연구를 통해 매우 유의한 수준의 연구라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2020년에 시작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UNCRPD(유엔 장애인권리 협약)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들이 시민사회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주요 목표는 중증장애인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당연한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노동의 기회는 중증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또한 가진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능력과 기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중증장애인은 그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자립할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의 기회”는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는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그들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참여 증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능력 발휘와 성취감에 대한 증진을 얻으며,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노동의 기회’를 통해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퍼포먼스’, ‘지역사회 제도 개선 모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 사항 모니터링’ 등의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미술’, ‘사진’, ‘연극’, ‘댄스’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등의 창작활동,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공연’ 등의 장애 인식개선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크게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자활 사업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서울의 뉴딜 프로그램을 포함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유사한데, 일자리 유형의 제한과 시장 전이의 한계, 일자리 지원 인프라(지원 조직 등)의 미흡, 참여자의 잠김효과와 회전문 효과, 질적 수준 평가 미흡, 참여자의 복지 의존성, 낙인 효과,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저조 등과 같은 평가가 그것이다. (김용탁(Kim Yongtak), 하경희(Ha Kyunghee), 류규열(Ryu Gyuyeul), and 윤상조(Yoon Sangjo, 2018.). 선행연구에서 알려졌듯이 일반 공공일자리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공공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특정 필요를 충족하는 부분에만 그친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에,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직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직무는 중증장애인에게 특정 필요와 능력에 맞춰 설계되며,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일반 장애인 공공일자리와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주요 차이점은 중증장애인의 목표와 제공하는 직무의 성격에 있다. 일반적인 공공일자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특정 필요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향상할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설문조사 인원 58명 중 41.7% ‘예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40%인 ‘예,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합친 결과 총 81.7% 49명의 중증장애인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참여자 본인의 권리를 향상하게 시킬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 전달체계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만 분절된 전달체계를 통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선 부처별로 적용되는 목적, 법적 근거, 주요 전달체계, 주요 대상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 범부처 간에 연계 사업을 통하여 서비스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이혜경 외, 2018).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 전달체계로서는 여러 부처에서 각각 다른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이에 따라 서비스가 분절되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범부처 간에 연계 사업을 통해 서비스 현황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인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합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반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특정 필요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그들의 능력과 기여를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선생 연구와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주요 차이점은 장애인들의 목표와 제공하는 직무의 성격에 있다. 기존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라는 중증장애인의 특정 필요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점 및 쟁점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되어 왔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들의 특성상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일자리의 수는 부족하기에 이에 따른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인 상황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제도의 도입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협약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장애인 또한 일반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에 기반하여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제공 방식을 택하였다.

하지만,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실행과정에서 다양한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비율은 현저히 낮고, 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를 지닌 노동자에게 맞는 맞춤형 직무 배치를 해야 한다. 능력의 한계라는 이유로 노동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여 기회를 박탈당해야만 했던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제도이다. 보편적으로 ‘생산성’을 기준으로 했던 노동자를 고용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권리’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이다. 많은 연구에서 중증장애인의 적절한 직업 배치와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그들의 직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용 주체가 중증장애인, 그리고 지원 인력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 되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 본 연구의 방향성 및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와 그 해결 방안에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공공일자리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에 관한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본 연구에서는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장애인 권리를 스스로 찾는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표 1〉 주요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	5단계 Likert 척도 (많이 개선됨 ~ 많이 악화됨)
		업무 만족도	5단계 Likert 척도 (매우 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배정된 일에 대한 만족도	5단계 Likert 척도 (매우 만족함 ~ 매우 불만족함)
		교육/훈련의 도움	5단계 Likert 척도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니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천여부	이진 선택 (예/아니오)
설명변수	인적 자원	교육/훈련의 도움	5단계 Likert 척도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니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수행의 원활성	5단계 Likert 척도 (예, 매우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아니오,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훈련 이용 여부	5단계 Likert 척도 (예,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 아니오,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자원	참여 경험	이진 선택 (예/아니오)
		권리 찾기의 난이도	5단계 Likert 척도 (예,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아니오, 전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나이대	다중 선택 (20대 이하 ~ 60대 이상)
		참여기간	다중 선택 (6개월 미만 ~ 2년 이상)
		참여 경험	이진 선택 (예/아니오)

주요변수 및 측정방법인 <표 1>과 같이 정의했다. 종속변수는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 업무 만족도, 배정된 일에 대한 만족도, 교육/훈련의 도움, 추천여부로 구성을 하였으며, 설명변수는 인적자원에서는 교육/훈련의 도움, 업무 수행의 원활성, 교육/훈련 이용 여부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자원은 참여 경험, 권리 찾기의 난이도로 구성하고, 인구 사회적 요인으로는 나이대, 참여 기간, 참여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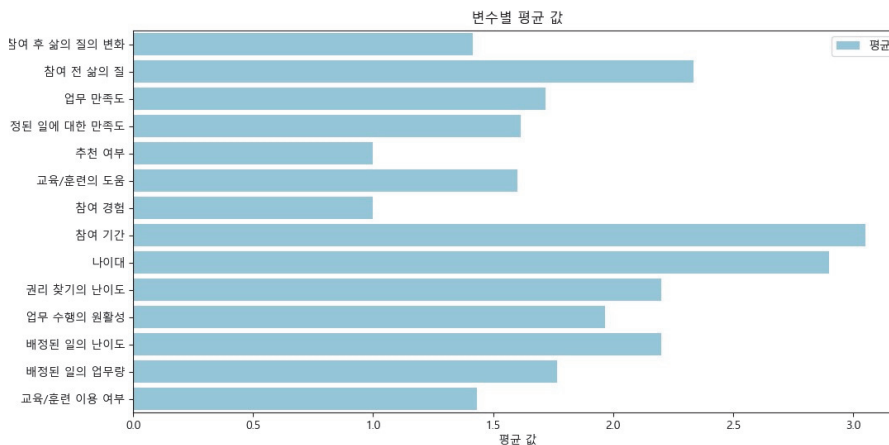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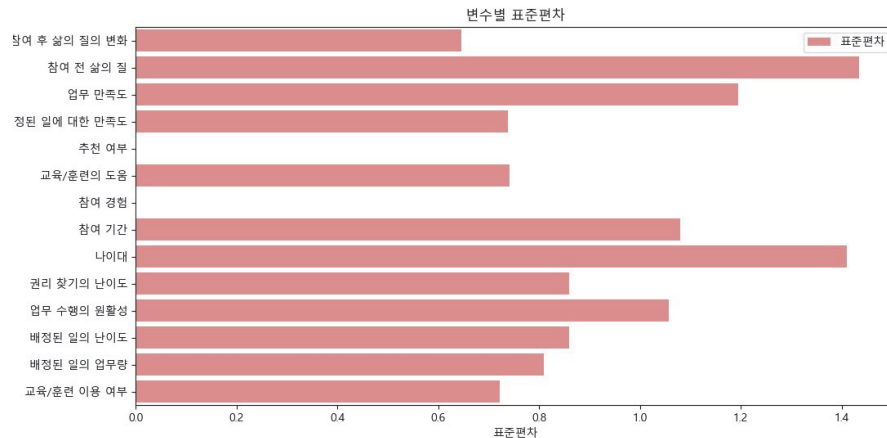
〈표 2〉 주요 변수와 각 항목에 관한 기술 통계량

		통계량											
N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	업무 만족도	배정된 일에 대한 만족도	교육/훈련의 도움	참여 기간	나이대	참여 전 삶의 질	권리 찾기의 난이도	업무 수행의 원활성	배정된 일의 난이도	배정된 일의 업무량	교육/ 훈련 이용 여부
	유효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결측	0	0	0	0	0	0	0	0	0	0	0	0
평균		1.4310	1.7414	1.6207	1.6207	3.1207	2.9655	2.3621	2.2414	2.0000	2.2414	1.7931	1.4483
중위수		1.0000	1.0000	1.0000	1.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최빈값		1.00	1.00	1.00	1.00	4.00	2.00a	1.00	3.00	1.00	3.00	1.00a	1.00
범위		3.00	5.00	3.00	3.00	3.00	4.00	4.00	3.00	4.00	3.00	3.00	2.00
최소값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최대값		4.00	6.00	4.00	4.00	4.00	5.00	5.00	4.00	5.00	4.00	4.00	3.00

〈표 2〉에서 나온 주요변수와 각 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량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와 관련 항목들을 해당 <표2>의 내용으로 해석하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참여 후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업무 만족도 또한 많은 수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배정된 업무도 마찬가지로 만족하고 있다. 또한,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에서 지원하는 교육 및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해당 일자리 사업을 다른 중증 장애인 및 최중증 장애인에게 추천한다. 및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면 응답자들이 주로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설명변수(인적 자원 관련)로서는 교육 및 훈련의 이용 여부 또한 매우 만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및 최중증 장애인이 업무 수행에 있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업무 또한 원활하다고 느낀 응답자가 많았으며, 설명변수(사회적 자원 관련) 중 참여 경험 또한 많은 수가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매년 참여했다는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으며,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었음. 인구 사회적 요인 중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참여자의 연령대는 어떤 특정 나이대가 주를 이루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았고, 참여 기간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었지만, 특정 동안 참여한 응답자가 많은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참여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일자리 참여자들의 삶의 질과 업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공된 교육과 훈련 또한 일자리 참여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며, 업무 만족도 또한 평균 이상임을 나타낸다. 또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유용했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만큼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나이와 권리 찾기의 난이도 등 몇 가지 요소에서 다소 다양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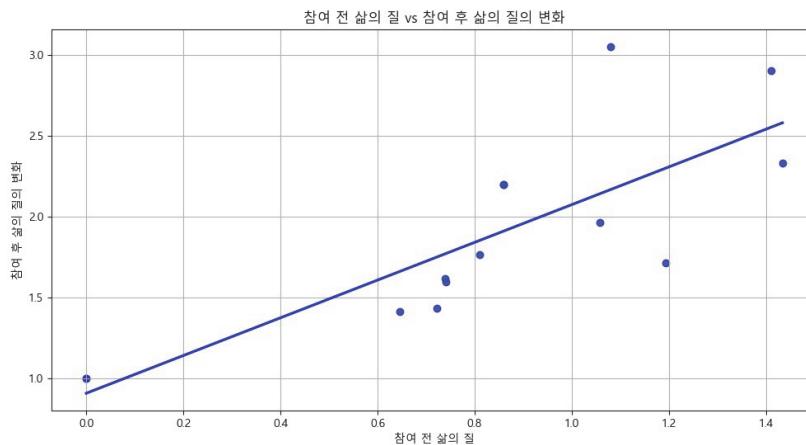
〈표 3〉 삶의 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회귀 모델 요약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737a	.543	.457	.48039

a. 예측자: (상수), 교육/ 훈련 이용 여부, 나이대, 참여 기간, 업무 만족도, 참여 전 삶의 질, 업무 수행의 원활성, 배정된 일의 업무량, 배정된 일의 난이도, 교육/훈련의 도움

모형의 R 값은 0.737로, 예측 변수들이 종속 변수와 어느 정도의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R 제곱 값은 0.543으로, 선택된 예측 변수들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참여하고 난 후 삶의 질의 변화가 약 54.3%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수정된 R 제곱 값은 0.457로 샘플 크기와 예측 변수의 수를 고려할 때, 모형이 데이터의 약 45.7%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추정값의 표준오차는 0.48039로, 예측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와 실제 값 간의 평균 차이를 나타낸다. 이 모형에서는 교육 및 훈련 이용 여부, 나이대, 참여 기간, 업무 만족도, 참여 전 삶의 질, 업무 수행의 원활성, 배정된 일의 업무량, 배정된 일의 난이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는지 등의 변수들이 참여 후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선형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참여 전 삶의 질이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참여 전 삶의 질이 높을수록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데이터의 약 65.1%를 설명하며, 모델 자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다. 따라서 참여 전 삶의 질이 높다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삶의 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니다. 하지만, 참여자의 경우 대부분 시설에 거주해서 정해진 프로그램과 정해진 일상, 그리고 틀에 고정된 일상생활을 살다보니, 그런 생활이 가장 만족스러운 생활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 4〉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참여 후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예측 변수들의 분석"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624	.326	1.913	.062
	참여 기간	-.182	.066	-.287	.008
	배정된 일의 업무량	.084	.098	.104	.858
	업무 만족도	.235	.062	.435	3.762
	교육/훈련의 도움	.113	.134	.129	.843
	나이대	.122	.051	.259	2.381
	참여 전 삶의 질	-.032	.048	-.072	-.681
	업무 수행의 원활성	-.042	.080	-.069	-.530
	배정된 일의 난이도	.131	.104	.170	1.259
	교육/ 훈련 이용 여부	.096	.116	.107	.829

a. 종속변수: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

참여 기간, 업무 만족도, 나이대는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업무 만족도는 가장 큰 양의 영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 전 삶의 질, 업무 수행의 원활성, 배정된 일의 난이도, 교육 및 훈련의 도움, 배정된 일의 업무량, 교육 및 훈련의 이용 여부는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수 항목의 값은 0.624이지만 유의수준 0.05에 유의하지 않다.

해당 〈표 5〉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B는 예측 변수의 변화에 때는 종속변수의 예상 변화량을 나타내며, 베타는 각 예측 변수의 표준화된 계수를 나타내고, t 값과 유의확률은 각 예측 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표 5〉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삶의 질 변화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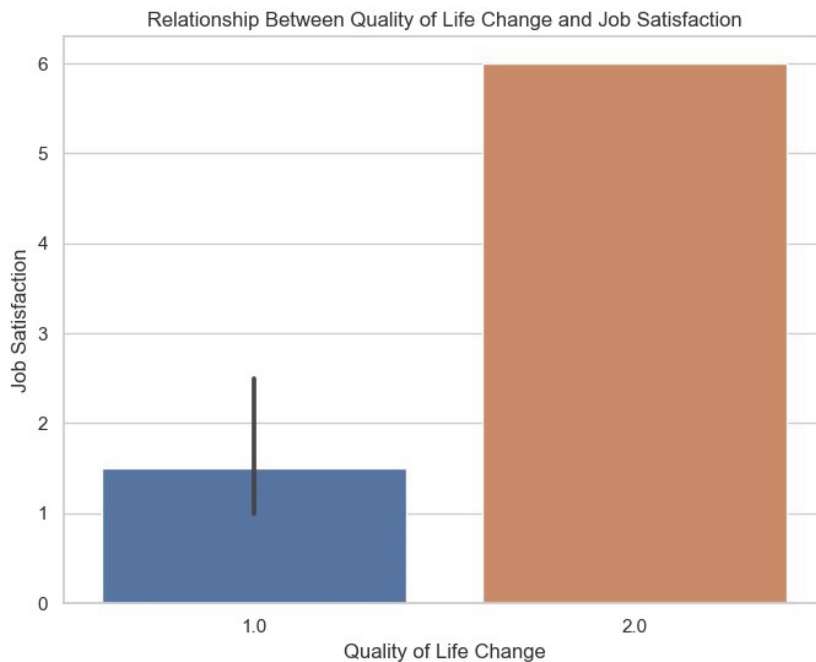
제외된 변수a

	모형	베타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
1	배정된 일에 대한 만족도	.b	.	.	.	.000
	권리 찾기의 난이도	.b	.	.	.	.000

a. 종속변수: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

b. 모형내의 예측자: (상수), 교육/ 훈련 이용 여부, 나이대, 참여 기간, 업무 만족도, 참여 전 삶의 질, 업무 수행의 원
 활성화, 배정된 일의 업무량, 배정된 일의 난이도, 교육/훈련의 도움

"회귀 분석 모델에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참여 후 삶의 질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고려
 된 여러 변수 중 '배정된 일에 대한 만족도'와 권리 찾기의 난이도'는 최종 모델에 포함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확인 하면 카이제곱 값 (Chi-Square Value)이 약 38.41이고, p-value
 가 매우 작은 값인 0.00078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인 0.05보다 훨씬 작은 p-value 값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여부"와 "직무 만족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직무 만족도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는 충분히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

IV. 연구결과

근대화와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삶의 질 변화가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참여자들의 삶의 질 변화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3>을 보면, R값이 0.737로 예측 변수들과 종속 변수 간 선형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제곱 값은 0.543로, 선택된 예측 변수들이 삶의 질의 변화를 약 54.3%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4>를 통해, F-통계량이 6.330으로, 예측 변수들이 삶의 질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 <표5>에서는 참여 기간, 업무 만족도, 나이가 삶의 질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업무 만족도 가장 큰 양의 영향을 가진다. 참여 전 삶의 질, 업무 수행의 원활성 등의 변수들은 삶의 질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표6>에서는 '배정된 일에 대한 만족도', '권리 찾기의 난이도'가 최종 회귀 모델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근무 현황 및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해당 일자리에서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존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제도의 개선 및 확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존재하는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식개선을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주체인 권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면, 서울시 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권리

를 가진 주체로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들의 권리를 생산해가며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권리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행하는 방면에 있어 중점을두고,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통해 중증 및 최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역량과 능력을 인정 받고, 사회와 연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받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대다수가 공공근로 일자리나 단순 노무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를 하게되며, 본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련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당사자 그들만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지역에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증가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한다.

한국 장애인재단 및 통계청의 자료들과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의 취업에 관련된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제언과 문제점, 그리고 해당 본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당사자와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의 고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자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의 개선 방안에 대해 기대를 하고자 한다.

첫째,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의 권리 생산을 위한 노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 둘째, 보조금 사업을 받는 사업을 매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지정기관으로 정하는 방안, 셋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를 참여하는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의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이다.

참고문헌

- 이혜경(Hye kyeong Lee).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재활복지 27.1 (2023): 139-163.
- 이혜경, 이수용, 지은숙, 김원호 (2018). 복지, 교육, 고용 연계를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 한수민. "청년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 Choi, S., Kim, H., Kim, Y., & Lee, M. (2023). 중증 중년 남성 임금 근로 척수장애인의 직업 적응
-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장애와 고용, 33(2), 235-264.
- 손호성, 강창희, 박희란.(2023).장애인구 및 4차산업 변화를 고려한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연구.위탁과제보고서,0,1-102.
- 장애인 취업결정 영향요인 연구 (고정환. "장애인 취업결정 영향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2. 경상북도)
- 박중석.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직업능력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서울
- 박아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시간사용이 자기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대학원, 2023. 충청남도
- 임지희,and 신원식.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주관적 인식유형." 한국장애인복지학 39.39 (2018): 167-184.
- 서울시복지재단. (2010).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보고서.
- Byeon, H.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노년학, 26(3), 1-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설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2023-1-9. 조간.

원고접수 : 2023. 9. 8.

수정원고접수 : 2023. 10. 30.

게재확정 : 2023. 11. 28.

Abstract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Changes of Participants in Seoul's Rights-Centered Public Job Program: Focusing on Individuals with Severe and Profound Disabilities

HyeonGmin Choi*

In South Korea, the term 'Rights-Centered Public Job,' a key concept in the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severe and profound disabilities, was derived from the English phrase 'Focusing on rights-oriented public jobs.' This program, initiated by the city of Seoul, is not yet widely recognized, but has since expanded under various terms such as Customized Public Job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Rights-Centered Public Jobs.

According to the program's conceptual definition, Rights-Centered Public Jobs are tailore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 These jobs aim to provide stable employment and diverse work activ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recognizing that labor includes a wide range of tasks. The need for workers in Rights-Centered Public Jobs is not limited to specific job roles but encompasses the idea that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should be acknowledged for their contributions to society through various work activities.

In 2023,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Disabled Workers Employment Program, supporting a total of 29,546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2,000 new

* Songpa solution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beneficiaries. The program will offer 42 different types of job roles, including activity support and assistant roles. While this expansion is commendable, the proportion of public jobs available to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remain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ctual population of such individual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employment issues faced by workers in Rights-Centered Public Jobs and explore ways to improve employment conditions. It also seeks to investigate how these jobs have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workers. Looking ahead to 2033, it is anticipated that the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to participate in Customized Rights-Centered Public Jobs will continue to grow, and the criteria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will become even more significant.

Keywords: Rights-Centered Public Jobs, Disability Employment, Seoul Public Job Program, Quality of Life Improvemen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